

People & Life

한국문화 체험 참가 대학생 태권도 교육



조선대학교가 마련한 '2010 하계 일본자매대학 학생 초청 한국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와세다 대학 등 일본 대학생들이 지난 13일 오후 본관 무도관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

호남대 재외동포 모국방문단 홈스테이



호남대학교 중국교류본부(본부장 이정림)는 최근 1박2일 동안 한국을 방문중인 재외동포 고교생 모국방문단 연수생들의 홈스테이를 실시했다.

보해-밝은안과 21 지정병원 협약식



보해양조(주) 노동조합과 광주 '밝은안과21'은 최근 상호 교류 및 지정병원 협약식을 가졌다.

故 앙드레 김 영결식 엄수



5일 오전 서울시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패션디자이너 고 앙드레 김(본명 김봉남) 영결식에서 고인의 영정이 유구 차례로 이동하고 있다. 장례식은 불교식으로 치러졌고 유족과 지인 등 200여명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애도했다. /연합뉴스

'여름 청소년 철학교실' 연 전남대 철학과 대학원생들

“왜 사느냐 물었더니 눈물 쏟더라”

중·고생 10여명과 인생 토론

요즘 중고생들에게 '왜 사느냐' '지금 행복한가'라고 물으면 어떤 답이 나올까. 여름방학을 맞아 전남대학교에 문을 연 '2010 여름 청소년 철학교실'이 피 말리는 입시경쟁을 벌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삶의 궁극적인 문제들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 강사들은 이 대학 대학원생들인 전경진(43)·박정민(34)·박현진(28)씨 등 3인. 이들은 중1~고3까지 10여명의 참가학생들과 함께 토론하며 무더운 여름과 싸우고 있다. "어떤 삶이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한 학생이 대답 도중 울더라고요. 이유를 물으니 '몇 등 하니?' 등 공부에 대한 질문만 받았지 정작 나의 행복한 삶에 대해 물어본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의 현실입니다. 자기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실 시간적 여유도, 누구 하나 물어보지도 않는 거죠."(박정민씨) 강사들은 각각 '정치철학의 고전들' '데미안과 함께 떠나는 철학 여행'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이란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 주제는 다소 어렵지만 토론 위주로 이끌어 가기에 부담이 없다.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이라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데 미숙하지만 한번 말을 하기 시작하면 붓물 터지듯 나온다고 한다.



왼쪽부터 전경진·박정민·박현진씨.

박현진씨는 "10대에든 거기에 맞는 삶이 있는데 사교육에서는 '왜 공부를 하는지' 등 고민할 여력조차 주질 않는다"며 "입시가 인생의 목표가 아닌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서부터 내 삶을 찾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대에서 철학강의가 열린다는 것이 교사와 학부모들에게서도 문의가 많았다. '자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싶다'는 학부모부터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인문학적 사고를 늘리기 위해' 직접 강의를 듣는 교사들도 있다. 철학적 사고의 부재는 비단 학생들 뿐

만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한 번은 딸과 어머니가 함께 와서 '철학과를 졸업하면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나요?'라고 물기도 했어요. 지금 같은 한국사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쉽게 취업하기 어렵죠. 철학과뿐 아니라 모든 학문이 안고 있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강사들은 모두 전남대에서 철학박사를 수료했거나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전경진씨는 "한국사회의 경쟁시스템이 잘못돼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물질적인 것에만 경쟁하고 인문학에 대해서는 경쟁하지 않고 무가치로 취급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인문학의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야말로 진정한 민주사회라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강명실기자 kps@



서재필 기념 교육관 건립 추진의 주역인 정환순 서재필 기념재단 회장(왼쪽)과 방무성 서재필 기념재단 고문(가운데)이 12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미디어 시의 서재필 기념관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美 서재필 역사 체험장 만든다

재미교포 방무성·정환순씨 기금모금 앞장

구한말과 식민지를 거치면서 한국의 선각자로 꼽히는 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해외의 주거지가 보존된 보성 출신 서재필 박사 기념관이 내년 말에는 이인 2.3세를 위한 역사 교육관으로 거듭나게 될 전망이다. 현재 서재필 기념재단은 300만 달러를 들여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미디어 시의 생전 서막사가 거개하던 주택 옆 3000여평의 부지에 교육관과 주차장을 짓고 미국에 거주하는 250만 교포들의 산 역사 체험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구체적인 청사진도 나왔다. 오는

11월 설계 공모를 마친 뒤, 서박사의 서거 60주년이 되는 내년 2월에 공사에 착공해 11월 완공한다는 것이다. 자금 마련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50만 달러는 한국 정부가 지원하고 150만 달러는 미국 교민의 기금 모금을 통해 조달하기로 한 것. 이 사업은 서재필 기념재단 방무성 고문과 정환순 회장이 주도하고 있다. 올해 만 69세 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우리 세대가 이 일을 못하면 영영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일에 뛰어 들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여수공고 “로봇은 우리가 최강”

국제올림픽대회 댄싱·미로찾기 부문 8개상 수상

여수공업고등학교 로봇동아리가 전국대회에서 2개 부문을 석권했다. 여수공업고등학교(교장 박인선)는 최근 경기도 일산 킷박스에서 열린 국제로봇올림픽대회 한국대회에서 로봇 댄싱과 카트링볼 미로찾기 부문에서 대상에서 장려상까지 무려 8개상을 수상하였다. 이 대회에서 3명이 한 조가 돼 출전하는 댄싱부문에서는 대상·금상·동상을, 개인이 출전하는 미로찾기는 대상과 금·은·동상에 장려상까지 수상하는 등 참가선수 전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주)(대표이사 서영주)와 학부모들의 열정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로봇동아리는 지난 2008년 대회에서 휴머노이드로봇 부문 3위를 시작으로 지난해 국제로봇 올림피아드에서 대상과 금상을 수상하며 계속해왔다. 로봇동아리는 오는 12월 호주에서 열리는 세계대회도 석권한다는 목표다. 지도교사 김종형(50)씨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한마음 되어서 이런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세계대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애국지사 이효정 선생 별세

일제시대 국내에서 노동운동과 항일투쟁을 벌인 애국지사 이효정(李孝貞) 선생이 14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7세.



경북 봉화에서 태어난 선생은 서울로 올라와 동덕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재학 중,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에 나가 만세를 부르고 종로경찰서에 잡혀가기도 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포장을 수여했다. 유족으로는 2남 1녀가 있다. 발인은 16일 오전 8시 인천의료원 영안실.

영화감독 박성범씨 별세

척수암으로 투병해 온 영화감독 박성범씨가 별세했다. 나빠져 15일 새벽 12시25분께 숨졌다. 향년 41세.



지난 2007년 젊은 남녀의 연애담을 다룬 '내 여자의 남자친구'로 감독 데뷔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두번째 작품으로 자살을 결심한 여자의 하루를 그린 '죽기 전에 해야 할 몇 가지 것들'을 내놓았다. 민소는 경기도 시흥시 신현연합병원 장례식장 2호실에 마련했으며 발인은 17일 오전 7시, 장지는 벽제화장장. 031-310-6442.

전남대치과대학 총동창회장

양혜령 전 광주시의원이 최근 전남대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총동창회장에 취임했다. 양 신임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오는



10월에 열린 '전남대치의학 55주년' 행사 등 대학의 위상 제고와 관련한 사업에 주력할 예정이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살아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동창·동문회

▲수도방위사령부(수경사) 제30경비단, 제1경비단 호남 전우회(임시 추진장기우성) 모임 및 모집=21일(토) 오후 6시30분 광주 상무지구 동해호텔. 062-373-9218, 010-2274-6400.

중친회

▲가라광산구 중친회(회장 김영호) 월례회=20일(금) 오전 11시 중친회관 2층 대회의실. 062-944-1951.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모집

▲광주대 풍수지리학 무료 공개 강좌=21일(토) 오후 2~5시 광주대 호심기념 도서관 5층 양택,음택,수택, 나경·입향론, 비결복명당, 장법요강 등 이론과 현장 제시(책차무료제공). 011-609-8117, 062-670-2161. ▲인터넷으로 주례신청=검색창에 '주례나라'를 검색하면 어디서나 결혼식에 검증된 주례선생님을 모실 수 있음(단, 제주도·울산시 제외) www.jure.ck.kr, 061-245-3350.

모집

▲클라리넷& 색소폰 회원 모집=30일부터 12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6시30분~8시 광주동구문화센터. 062-225-8700. ▲김순덕 노래교실 회원 모집=30일부터 12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3시~4시30분 광주동구문화센터. 062-225-8700. ▲한국노인대안학교 퇴직 후 30년 노후생애준비학교 학생모집=노후생애변화, 생활영어, 웃음치료, 교육요강 등 이론과 현장 제시(책차무료). 011-609-8117, 062-670-2161. ▲인터네트 주례신청=검색창에 '주례나라'를 검색하면 어디서나 결혼식에 검증된 주례선생님을 모실 수 있음(단, 제주도·울산시 제외) www.jure.ck.kr, 061-245-3350.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엠마우스복지관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에서 여성장애인 및 자녀 대상으로 18일(수)까지 총 8회 경제교육프로그램 진행 예정 현재 모집. 여성장애인 가족체험 프로그램은 오는 13일(금) 나주 중흥골프스파에서 30명 예정. 선착순 모집(참가비 무료) 062-524-7728. ▲사랑마미 가족복지회 회원 모

집=종이공예·독서모임·성교육 스텀디 강사, 생활체육 배드민턴 회원 모집. 062-385-0422. ▲아카데미 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자 모집=월 3~4회 노인 돌보미·노인 무료급식·환경 사수대 활동 가능한 봉사자 모집. 062-412-3201. ▲부동산 경·공매 동호회원(무료) 모집=기초부터 현장 답사, 물건·채권 권리분석, 부동산 미래가치 및 환금성 분석 등. 문의 011-607-4614. ▲유급지원병(전문병) 모집=중

졸 이상 학력으로 해당 특기 자격·면허 또는 전공학과 이수자. 모집 인원 1천명. 의무복무기간은 일반병과 동일, 연장복무기간은 하사로 영내 거주하며 이 기간중 월 120만원·지원장려수당 월 60만원 지급. 문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팀 062-230-4246~9. ▲적십자사 수지침 봉사회 회원 모집=수지침 요법을 배워 사회 봉사에 참여할 분. 무료. 018-610-3360. ▲청수 조기 축구회 회원모집=45~55세 매주 수·금·토·일요일 오전 7시부터 수창초 운동장 017-612-7695. ▲불림 동호회 '다이아몬드' 회원

모집=30세 이상 부부, 매월 첫째 셋째 금요일 011-607-0347. ▲한국웃음협회 회원 모집=건강회복과 웃음문화 보급을 위한 웃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 016-607-1958. ▲어린이재단 전남가정위탁 지원센터 위탁 아동·부모 모집=친부모의 사망·가출 등으로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탁 아동과 봉사 차원에서 아동을 양육해 줄 위탁부모 모집. 061-279-1225~6.

부음

▲김금순씨 별세 윤철환·석환·수환·봉환·중환·경순·영순씨 모친상=발인 17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최정순씨 별세 정진혁·찬수·찬복·찬무·승원·찬선씨 모친상=발인 6일(월)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나영순씨 별세 김양중·홍중·강중·향숙씨 모친상=발인 16일(월)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Advertisement for Green Funeral Home (그린장례식장)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s.

Advertisement for funeral services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with details for several families.